

10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강 동 석
국립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 III. 군집 유형을 통해 본 지식묘 사회의 역동성
- IV. 지식묘 사회의 성장 배경
- V. 맺음말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 분포, 구조, 관계를 중심으로 -

강 동 석 (국립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식묘는 전남 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동복댐·주암댐 수몰지구, 2000년대 초 탐진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지식묘의 계속성은 전남 지방 지식묘의 형식과 변천(이영문 1987; 2002b, 지건길 1990,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마제석검과 비파형동검 연구(이영문 1991; 2002a), 영역권 설정(이영문 1993b; 2002b), 인구의 결집과 확산(황재훈 2009) 등, 국내 지식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와 더불어, 섬진강, 탐진강 유역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진선(2008)과 황재훈(2012), 박덕재(2012)는 지식묘 형식 변천과 군집, 유물 검토를 통해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식묘의 계기적 발전 과정을 논하였으며, 김경택(2004)은 지식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수량에 기초하여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 유역 지식묘 사회의 신분 구조를 추론하였다. 한편 김진영(2012)은 지식묘에서 출토된 석검, 옥을 교역품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탐진강 유역 지식묘 사회의 지역 간 교류상을 재구성하였으며, 이종철(2012)은 탐진강 유역의 송국리형 취락과 지식묘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처럼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지식묘 연구는 매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결과 두 유역권의 지식묘는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영산강 유역, 여수반도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섬진강에서 탐진강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시간적·공간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조진선 2008, 황재훈 2012). 이러한 인식은 주로 지식묘 형식과 출토유물, 입지, 분포의 변화상, 그리고 이를 기초로 설정한 계기적 발전 단계에서 찾아지는 상사성과 상이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물과 유구, 유적 자체를 문화의 형성, 전파, 확산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여기에는 지식묘를 축조하거나 유물을 부장하고, 매장 의례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은 결여되어 있다.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에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현상의 발현과 지역 간 유사성은 실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적 행위의 관점에서 지식묘의 계속성과 분

포 패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섬진강·탐진강 유역에서 지식묘를 축조하며 고유의 지역 문화를 형성하였던 사람 또는 사람들 간의 동질성과 역동성,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먼저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펴보고, 기존에 다루어졌던 지식묘 군집 양상의 재검토와 GIS, SNA를 이용한 지식묘 분포 패턴 분석을 통해 지식묘 사회의 구조와 네트워크, 상호 관계 등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다.

II.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1. 지식묘 분포 현황

본 발표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는 섬진강 유역권 가운데 발굴조사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보성강·주암댐 유역권¹⁾과 탐진강 유역이다. 이 두 유역권은 수자원단위지도에서 별개의 대유역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권역이 접해 있고, 지식묘 문화의 상호 연관성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남 지방의 지식묘는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준으로 2,428개소, 18,910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강동석 2012). 이 가운데 섬진강·탐진강 유역에는 전남 전체의 16.2%에 해당하는 394개소, 3,173기의 지식묘가 분포하며, 중·소규모의 군집이 단위 밀집군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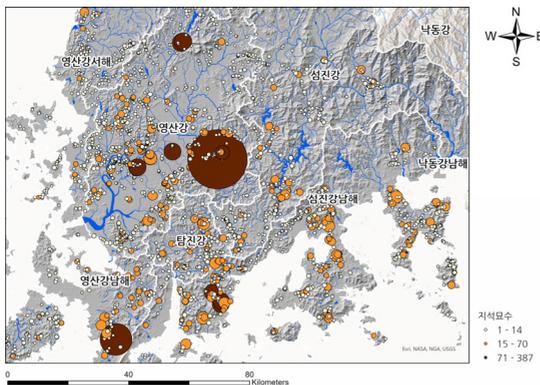


그림 1. 전남지역 지식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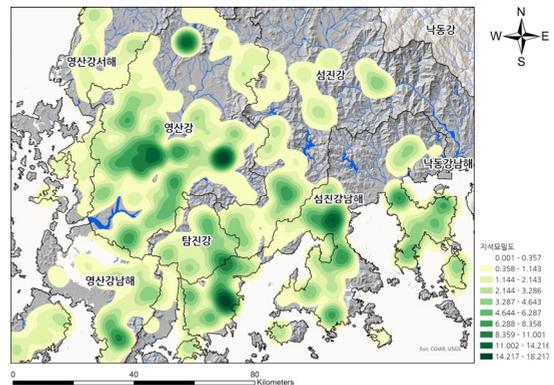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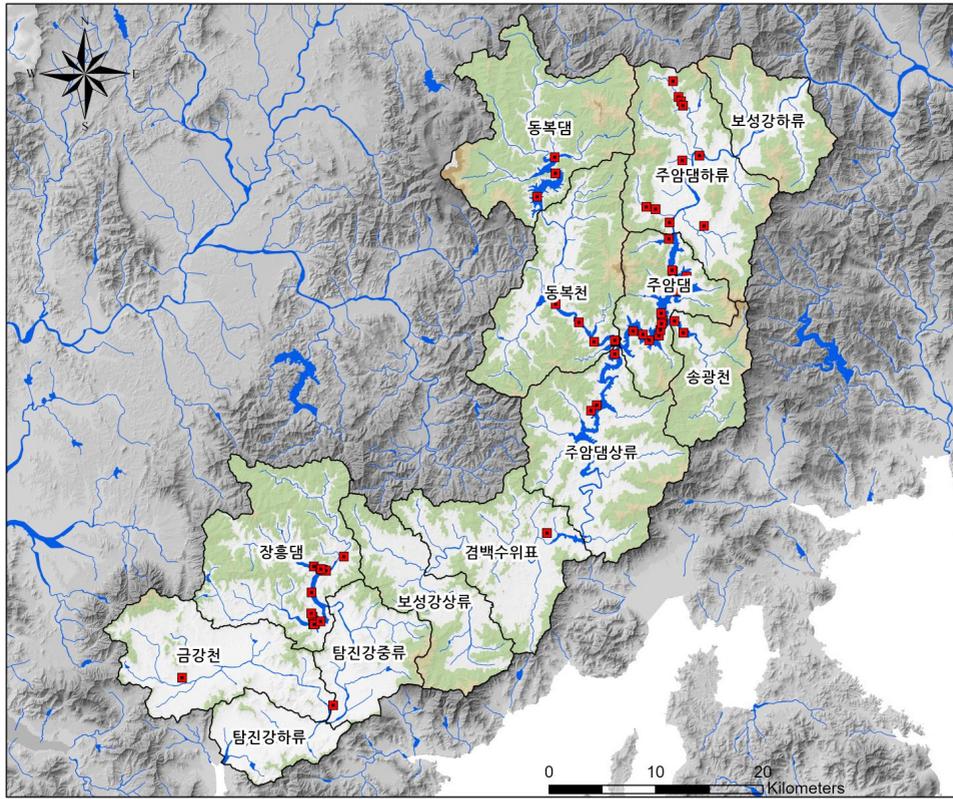


그림 2. 전남지역 지식묘 분포 밀도

섬진강·탐진강 유역에서 확인된 지식묘군은 1~12기, 13~35기, 36~66기에 해당하는 군집을 각각 대, 중, 소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이를 표준유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군집에 속하는 지식묘군은 전체 322개 군집 중 모두 9개소이며, 주암댐과 주암댐 상류, 탐진댐과 탐진댐 중류역에 집중 분

1) 본 발표에서 언급하는 섬진강 유역권은 보성강·주암댐 유역권을 의미하며, 섬진강 본류(이종철 2015), 섬진강 중·상류(김규정 2019)와 구별된다.



군립명	지석묘수
강진 수양리 수암	20
곡성 광덕리 옥봉	1
곡성 용평리	6
곡성 연변리 가군	1
곡성 연변리 다군	3
곡성 연변리 건기	2
곡성 유정리 유평	5
곡성 덕지리 신기	15
보성 봉길리 고수철	15
보성 시현리 삼지 가군	15
보성 시현리 삼지 나군	17
보성 용평리 월진 가군	15
보성 죽산리 하죽 가군	11
보성 죽산리 하죽 나군	15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38
순천 광천리 ①	2
순천 광천리 ②	5
순천 대곡리 도흥	15
순천 대곡리 도흥유적	29
순천 대곡리 합일	3
순천 대곡리 신기	19
순천 덕산리 죽산	8
순천 비룡리	1
순천 신평리 공평	7
순천 오평리 다군	16
순천 오평리 라군	16
순천 오평리 야군	4
순천 오곡리 오원	15
순천 우산리	40
순천 우산리 곡천	17
순천 우산리 내우	58
순천 월산리 반말	12
순천 월산리 사비	20
장흥 단산리 외정	1
장흥 대리 상평촌	5
장흥 대리 하평촌 가군	1
장흥 대리 하평촌 나군	9
장흥 대리 하평촌 다군	10
장흥 대리 하평촌 라군	19
장흥 송평리 가군	35
장흥 송평리 갈두 가군	63
장흥 송평리 갈두 나군	8
장흥 송평리 갈두 다군	24
장흥 송평리 나군 1지구	19
장흥 송평리 나군 2지구	6
장흥 송평리 마정	34
장흥 오북리 오북동	23
장흥 문원리 당산	4
장흥 송월리	13
화순 북교리 북교	8
화순 사수리 대전	31
화순 황산리 광평	2
화순 장곡리 광창	3
화순 결산리 광선	9
화순 창월리 월항	14

그림 4. 섬진강·탐진강 유역 발굴지석묘 현황

2. 지석묘의 지역적 특징

1) 지석묘 형식

전남 지방 지석묘의 형식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매장주체부의 위치(지상형, 지하형, 반지하형)와 장포비(장방형, 세장방형), 묘곽의 축조 방법(석곽형, 혼축형, 석곽형, 위석형), 묘역시설(적석형, 포석형, 무묘역형), 지석의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이영문 1993a,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지석묘의 제속성과 형식은 장법과 장송 의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반영하고 있어 지석묘 문화의 지역적 특성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형식 설정을 위해 취사선택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분류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별도로 형식 분류안을 제시하는 대신, 지석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속성을 간취하여 섬진강과 탐진강 지석묘의 특징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망자의 안치라는 매장의례행위를 감안할 때, 지석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자를 직접 안치하는

묘곽의 축조와 외형의 완성일 것이다. 먼저 묘곽은 망자가 일상에서 분리되어 저승으로 들어가는 소위 ‘경계 넘기’를 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묘곽의 축조 재료 선정이나 축조 기법은 오랜 사회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관습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는 문화적 전통의 유사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남 지방에서 확인되는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위석형의 분포수와 비율은 섬진강과 탐진강의 지식묘 문화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지식묘의 외형도 망자 안치와 수반한 사회적 관습의 공유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식은 망자의 안치 공간과 상석을 분리시켜 주고, 외형적으로 상석이 웅장하고 위용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이영문 2002b: 123), 매장 풍습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식은 묘역시설이 간략화되면서 상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황재훈 2012: 136). 하지만, 지식의 출현은 이러한 구조적인 기능과 함께, 망자에 대한 기억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묘 축조 전통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지식의 설치는 묘곽으로부터 상석을 분리하여 죽은 자의 공간을 보호하고, 외형을 보다 돋보이게 하여 망자가 생존에 지니고 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망자로부터 영속된 권력을 이양받은 수장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장례 풍속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묘의 묘곽 축조 방법과 지식을 지닌 기반식 지식묘의 존재는 매장의례와 관련한 문화적 전통의 공유 양상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발굴지식묘를 대상으로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에서 확인된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위석형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1>은 매장주체부 묘곽 형태별로 조사된 지식묘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섬진강, 탐진강

표 1.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식묘 묘곽형 수량과 비율

구분	섬진강		탐진강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석곽형	133	43.0	86	38.9
혼축형	61	19.7	37	16.7
석관형	23	7.4	31	14.0
위석형	92	29.8	67	30.3
계	309	100	221	100

유역에서 모든 형태의 묘곽이 확인되며, 석관형을 제외하면 각 묘곽형의 점유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는 두 유역권의 거주민들이 매장 공간을 축조하는 수법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묘곽의 분포 현황은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묘곽형은 축조 군집의 위치

와 축조 수가 다르지만, 유역권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천들이 합수되는 순천 우산리, 장흥 송정리 일대에서는 모든 형태의 묘곽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두 유역권의 거주민들이 시신 안치 공간을 축조하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매장 풍습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 지방 지식묘의 매장주체부 축조 재료는 할석→혼축→판석 순으로 점차 대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황재훈 2006), 사회적 관습의 변화도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이 동일한 맥락에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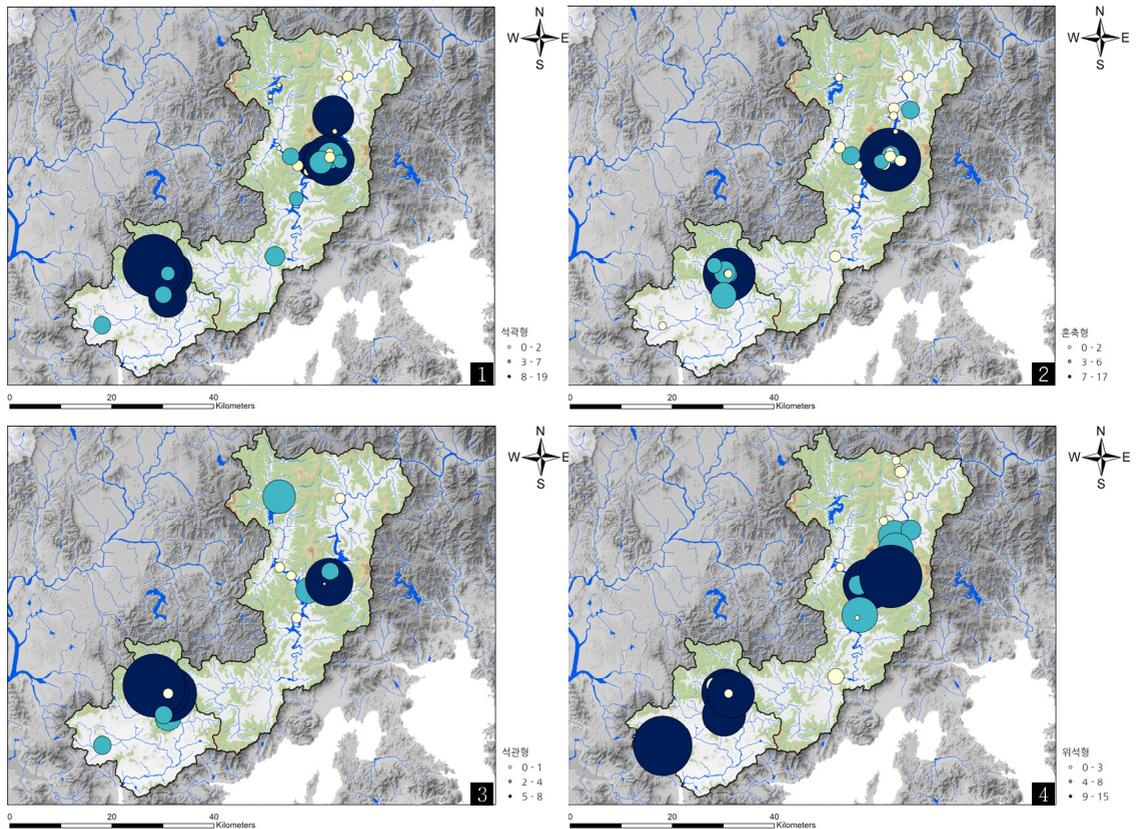


그림 5.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묘곽형의 분포 현황

한편 지석의 설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석묘 축조 기술 전통의 변화와 함께, 매장 관습의 변화, 땅자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석을 가진 지석묘, 즉 기반식 지석묘의 차별적 분포는 동일한 사회 관념과 문화의 공유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6>은 섬진강·탐진강 유역 발굴지석묘 가운데 기반식 지석묘가 확인된 군집의 분포와 그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발굴지석묘 55개 군집 가운데 섬진강 18개, 탐진강 9개 군집에서 기반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유역권의 모든 군집에서 기반식을 축조하지는 않았지만, 전역적 분포 양상을 볼 때, 기반식 축조와 관련한 매장 방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출토유물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지석묘는 형식별 분포와 밀집도에 근거하여 섬진강에서 탐진강으로 확산되었고,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 시간적 전개 양상도 논의되었다(조진선 2008, 황재훈 2009). 하지만,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는 문화 확산을 논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유역권별로 지역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석검, 석부, 석도, 토기 등을 재검토하여 두 유역권 지석묘 문화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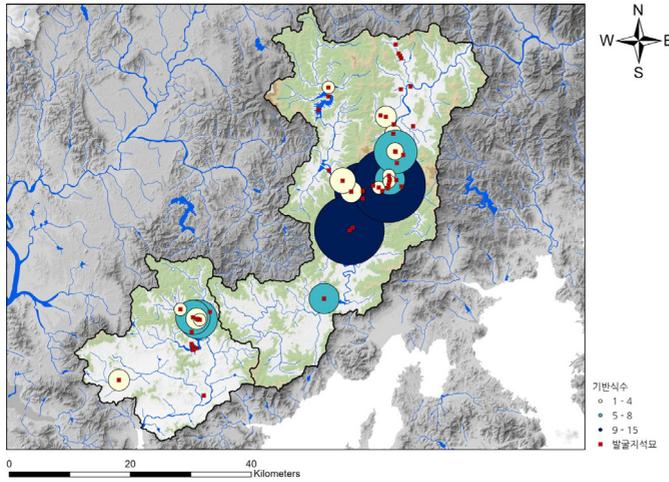


그림 6. 섬진강·탐진강 유역의 기반식 지석묘 분포 현황
 로 흙만 파여진 IIb식, 넓은 경부에 구멍이 있는 IIc식, 경부만 있는 IId식이 일부 보인다.

먼저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은 유병식 41점, 유경식 26점으로, 모두 67점에 해당한다(표 1). 이영문(1997; 2002b)의 석검 형식분류안에 따르면, 유병식 석검은 병부가 단을 이루고 있는 IIa식과 돌대가 있는 IIb식, 검신과 병부가 구분만 있는 IIIa식이 확인된다. IIa식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IIb식 9점, IIIa식이 3점 출토되었다. 한편, 유경식 석검은 26점이 출토되었는데, 짧고 넓은 경부 양쪽 끝에 흙이 파여진 IIa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검신 끝에 경부가 없이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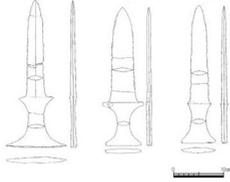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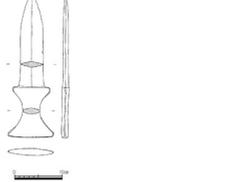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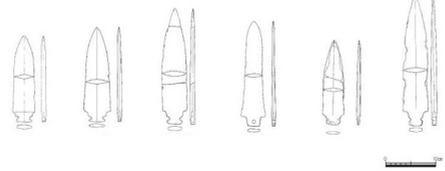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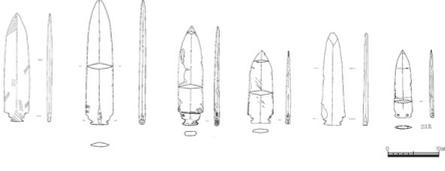
표 2.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마제석검 출토 현황

*()는 유물수

유역권	지석묘군	유병식		유경식형식		합계
		형식	수량	형식)	수량	
섬진강 유역	곡성 공북리	IIb	2			2
	곡성 유정리 유평	IIa	1	II d	2	3
	보성 덕치리 신기	IIa(1)/IIb(1)/IIIa(1)	3	IIa/(1)IIb(1)	4	7
	보성 죽산리 하죽 가군	IIb	1			1
	보성 죽산리 하죽 나군	IIb	1			1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IIb	5	IIa	5	10
	보성 용정리 활천 가군	석검편	1			1
	보성 시천리 살치 가군	석검편	1			1
	보성 시천리 살치 나군	IIb	1			1
	순천 신평리 금평	IIb	2			2
	순천 오봉리 다군	IIa	1			1
	순천 오봉리 라군	IIIa	1	IIa	1	2
	순천 우산리	IIa(1)/IIb(1)	2			2
	순천 우산리 곡천	IIa(1)/IIb(1)	2			2
	순천 우산리 내우	IIa(3)/IIb(5)/IIIa(1)	9	IIa(3)/IIc(1)	6	15
	순천 월산리 사비	IIb	1			1
	화순 사수리 대전	IIb	1			1
화순 장랑리 장랑	IIa	1	IIa	2	3	
소계			36	20	56	
탐진강 유역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	IIb	1	IIa	2	3
	장흥 송정리 가군			IIa	2	2
	장흥 신평리 마정	IIb	2	IIa	1	3
	장흥 오북리 오북동	IIa/IIIa	2	IIc	1	3
소계			5	6	11	
합계			41	26	67	

이상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의 형식을 보면, 유역권 전역에서 유병식은 IIa식과 IIb식, 유경식은 IIa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형식은 소수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15점의 석검이 출토된 우산리 내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석묘군은 삼진강·탐진강 유역권 석검의 형식적 특징과 제작 기술을 대변해 준다. 이 점에 주목하여 우산리 내우 출토 석검을 기준으로 삼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표 3). 탐진강 유역의 장흥 오복리 오복동 7호 지석묘에서 확인된 유병식 석검 IIa식은 심부와 병두부의 끝이 잘려 있고, 병부로 이어지는 단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우산리 내우 22호 지석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또한, IIb식의 경우에도 심부에 돌대가 있고 T자형 병부를 가진 형태적 유사성이 간취된다. 한편 탐진강 유역에서 확인된 유경식은 옥복리 오복동 23호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IIa식에 해당하는데, 길이가 짧고 넓은 경부와 검신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표 3. 삼진강·탐진강 유역 마제석검 비교

구분	삼진강 유역(순천 우산리 내우)	탐진강 유역
유병식		
유경식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볼 때, 두 유역의 석검은 동일한 제작 기술 전통 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석검 제작 전문 집단의 존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공급과 수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석검의 출토 수와 지석묘의 군집 규모로 미루어 보아, 석검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였던 것은 우산리 내우, 죽산리 하죽, 덕치리 신기 등이 위치한 보성강, 동북천 합수 지점 일대의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검의 형식별 변천은 유병식의 경우, (손준호 2008, 이재운 2011, 최성훈 2015). 심부에 단이 있는 심부유단식(Ⅱa식)이 절이 있는 심부유절식(Ⅱb식)보다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섬진강, 탐진강 유역에서는 유단식과 유절식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계기적 전개 과정에서의 유역 간 선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각 유역권 내에서 석검 형식별 제작과 사용 시기의 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석도와 석부 등 석기류의 출토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순천 월산리 사비 지석묘군을 제외하면, 모두 삼각형석도이며, 전역적 분포 양상을 보인다(그림 7의 좌). 석부도 마찬가지로 순천 오탁리 오원, 장흥 오복리 오복동에서 출토된 유공석부 2점을 제외하면, 모두 유구석부이다(그림 7의 우). 이처럼 송국리문화유형의 표지적인 석기라고 할 수 있는 삼각형석도, 유구석부의 출토는 송국리문화유형이 섬진강, 탐진강 유역의 지석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기반한 사회경제적 변화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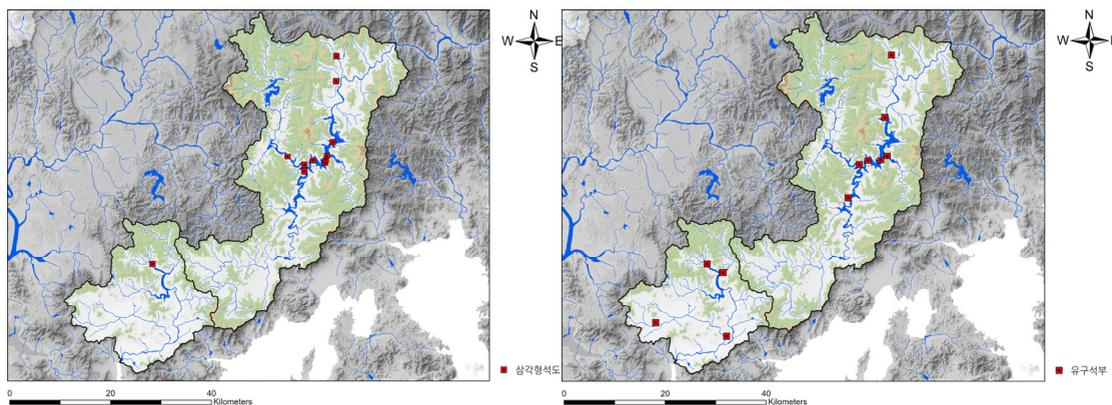


그림 7. 섬진강·탐진강 유역 삼각형석도(좌), 유구석부(우) 출토 현황

이밖에 지석묘에서는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 채문토기, 점토대토기, 흑도 등이 출토되었다. 공렬토기는 순천 우산리 곡천 4-2호 석곽형 묘곽 내에서 출토되었다. 이 지석묘군과 인접한 순천 대곡리 도롱·한실의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도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에 공렬토기로 대표되는 역삼동 유형의 재지적 전통 요소와 새로운 송국리유형 간의 상호 복잡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섬진강 유역권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이영문 2002b, 이종철 2015). 한편, 탐진강 유역권에서는 역삼동유형의 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주거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섬진강 유역과 같은 토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점토대토기와 흑도는 탐진강 유역권의 장흥 송정리 가군 서4호에서 출토되었다. 섬진강 유역권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섬진강 유역과 인접한 곳에서 세형동검, 검과두식 등 동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탐진강 유역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식묘에서 공렬토기, 점토대토기, 흑도 등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묘 부장유물의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이다. 이를 통해 볼때 두 유역권에서 지식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된 것은 청동기시대 중기부터이며, 송국리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성장과 변화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Ⅲ. 군집 유형을 통해 본 지식묘 사회의 역동성

앞서 지식묘 제속성에 해당하는 묘곽형의 구성과 축조 비율, 공간적 분포, 그리고 석검과 석도, 석부의 출토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의 지식묘 문화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유역권은 석곽형-혼축형-석관형으로 이어지는 묘곽의 변천 과정, 심부유단식-심부유절식 석검의 시기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시적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식묘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인 군집 패턴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회적 역동성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식묘군은 지식묘의 배치와 구성을 기준으로, 크게 열상과 비열상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군집에 위석식지석묘들이 축조된 I 유형과 열상의 군집+위석식지석묘군으로 구성된 II 유형, 그리고 비열상군집과 위석식지석묘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III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I 유형은 열을 지어 축조된 군집과 접하여 무질서하게 지식묘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군집들 사이에 위석식지석묘가 축조된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는 순천 우산리 내우 지식묘이며,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 신평리 마정 지식묘군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그림 9). 이 유형 지식묘군의 축조 순서와 관련하여, 황재훈(2006; 2012)은 우산리 내우의 축조 순서를 지식묘 형식별 분포, 유단·유절식 석검, 삼각형석도, 유구석부의 출토 양상, 지식의 설치 등을 근거로 축조 순서를 추정된 바 있으며, 조진선(2008)도 지식묘 형식 분포 양상을 근거로 소군집 단위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와같은 유구와 유물의 형식적 속성에 근거하여 축조 과정을 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전통 질서의 유지와 유력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권력 구조 재편의 결과물이라는 관점, 즉 구조화 이론과 실천 이론에 입각하여 지식묘 배치 양상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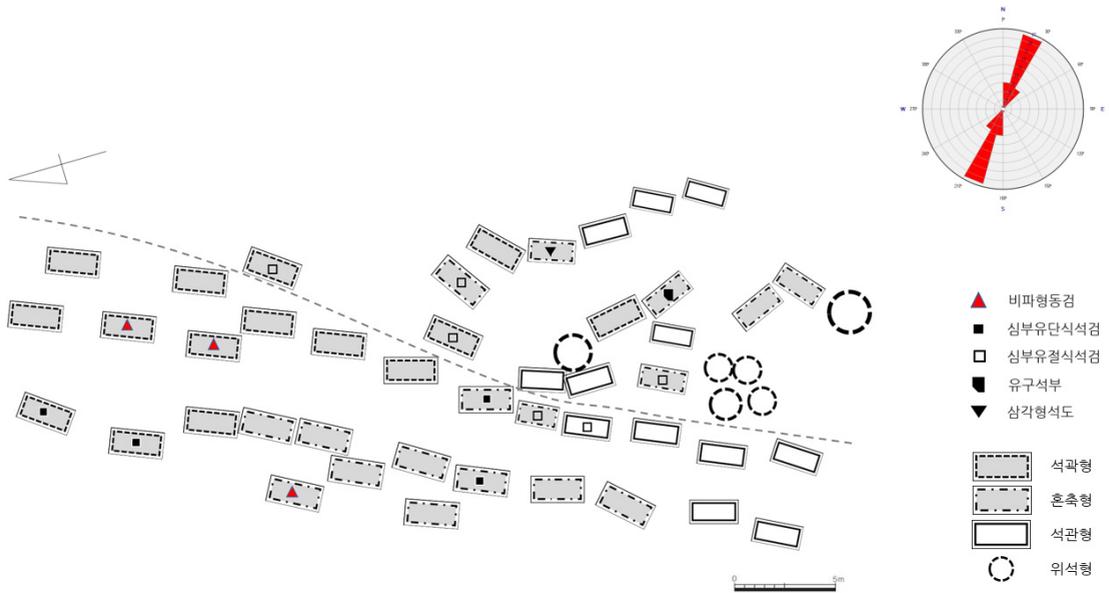


그림 8. 순천 우산리 내우 지석묘군의 배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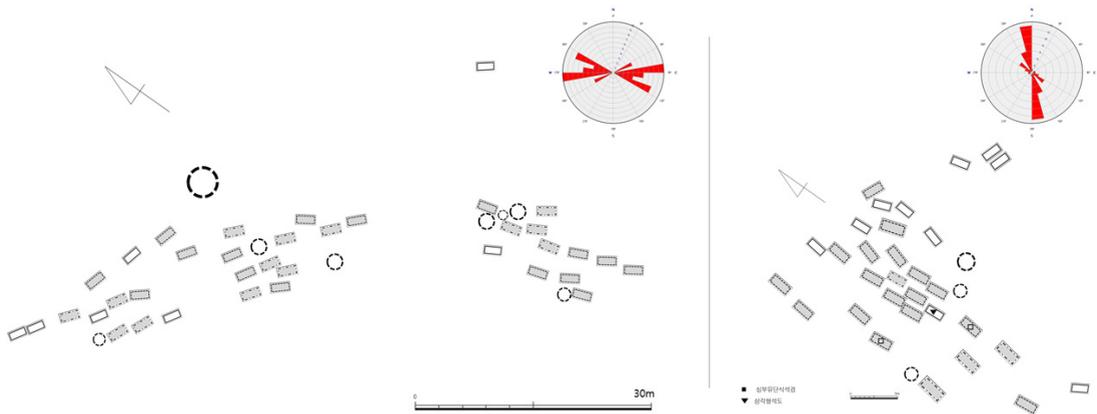


그림 9.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좌), 신평리 마정 지석묘군(우)

매장의례는 단지 죽은 자를 안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나 서열, 권력 관계를 합법화하는 한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장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권력 구조를 재합리화하거나 재조정되는 실천의 장이 되기도 한다(김종일 2004: 13-15). I 유형 지석묘의 열상 배치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며, 선조와 다르지 않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선형 구조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석묘 축조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기존 질서에 종속된 매장 의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

체성과 공동체성이 재형성되었을 것이며, 유력자는 지식묘 축조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망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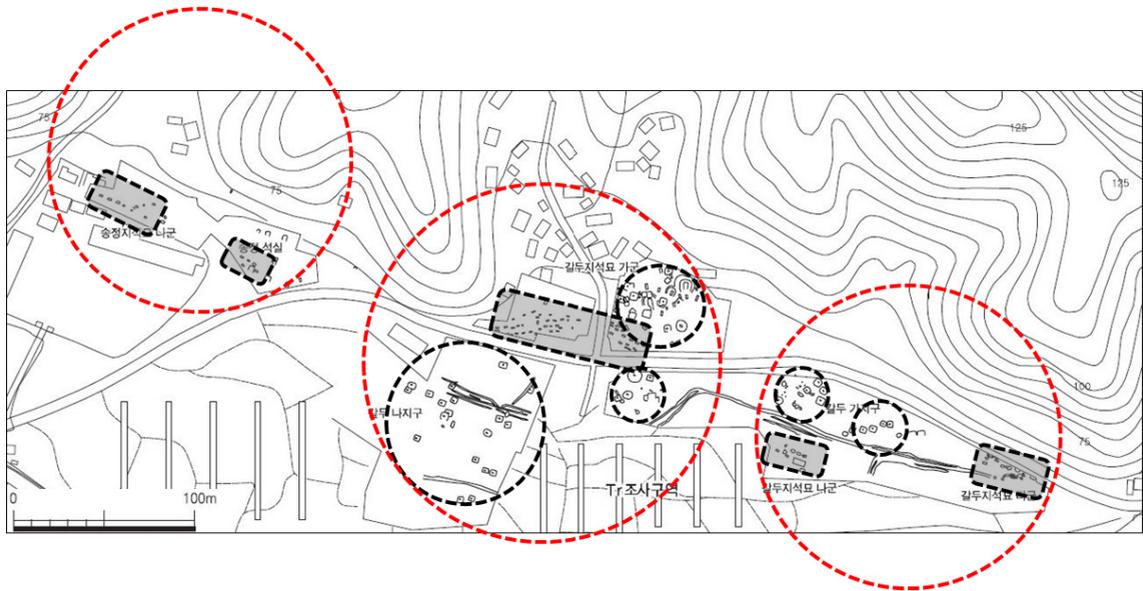


그림 10. 장흥 송정·갈두유적 지식묘군과 주거군 배치도

여기에서 유력자는 주거군을 단위로 하는 집단의 리더일 수 있다. 지식묘군과 주거군이 함께 조사된 장흥 송정·갈두 유적을 살펴보자(그림 10). 갈두 유적에서는 세 개의 지식묘군과 5개의 주거군이 확인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갈두 지식묘 가군을 중심으로 3개의 주거군이 근접해 있고, 갈두 지식묘 나군과 다군 근처에 2개의 주거군이 위치한다. 이와 같은 지식묘군-주거군과의 근접 관계에 기초해 볼 때, 복수의 주거군이 하나의 지식묘군을 공동의 매장의례공간으로 조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거군은 주거집단을 구성하며, 사회조직, 생산, 교환뿐만 아니라, 사회 변천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분절적 출계집단을 나타낸다(김승욱 1998: 5-11). 즉, 지식묘 피장자는 이와 같은 주거군을 이루고 있는 집단의 리더이며, 강력한 출계집단의 유력자로 볼 수 있다.

우산리 내우를 비롯한 단위 사회에서 처음으로 지식묘 축조를 주도하였던 세력과 안치되었던 피장자는 이러한 출계집단의 유력자였다고 본다. 집단의 리더의 죽음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낙담, 불안, 공포 등을 야기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또 다른 리더는 공동체의 사기를 높이고 연대감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식묘 축조라는 협업적 매장 의례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묘 축조 행위를 주도하였던 리더는 장송의례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였을 것이다. 즉, 특정 출계집단의 유력자는 선조 유력자의 죽음과 지식묘 축조라는 정치적 사건을 통해 권력의 이양과 영속적 지위의 획득을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추인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출계 집단 리더의 죽음을 매개로 한 영속적 권위의 유지와 기존의 사회 질서와 역사적 연속성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선형 또는 열상의 지식묘 축조로 배치 구조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부상한 유력자는 그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설득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며, 외래 집단과 접촉하여 선진 기술에 대한 정보나 초자연적인 특질을 지닌 외래품의 입수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김승욱 1998: 18, 티모시(김경택 역) 2008: 207-214). 우산리 내우의 경우, 동일한 열상 구조를 이루는 지식묘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으며, 기존 석곽형과는 다른 형태의 혼축형, 석관형 묘곽 등이 확인된다. 비파형동검의 부장은 특정 자원에 대한 차별적 접근 권한이 있었고, 외래 집단과의 접촉을 통한 새로운 지식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산리 내우에서 지식묘를 축조하며 등장한 유력자는 비파형동검이라는 청동기의 입수,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이념의 조작을 통해 노동력 통제와 관련한 그들의 영속적 지위를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혼축형, 석관형 묘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할석의 넓은 면을 이용하거나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혼축형, 석관형의 묘곽은 주지하다시피 송국리형 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묘곽 축조 방식이며, 지식묘 축조를 주도하였던 유력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습득한 장례 지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력자는 외래 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확대해 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열상의 지식묘 배치를 따르는 사회적 전통과 질서를 준수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매장의례에 의해 과거-현재-미래로 연속되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산리 내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열상 구조의 변화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빗금을 경계로 기존과 다른 무질서한 군집 패턴이 보인다. 가장 후대에 축조되었다고 보이는 위석식지석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혼축형, 석관형의 묘곽이며, 심부유절식 석검,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등 송국리유형의 표지적 요소가 나타난다. 열상의 지식묘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보이지만,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무덤은 단순히 과거 사회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의 산물이자 사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 또는 이념적 기제로서 역할을 한다(김종일 2004: 22). 지식묘 축조 배치 구조의 변경은 전통적인 매장의례 질서를 뒤흔드는 사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유발하였던 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취락공동체 내에서 지식묘를 축조하는 새로운 유력 출계 집단의 등장으로 해석된다.

공동체 내 출계집단은 지식묘를 축조하는 의례 행위나 경제적·군사적 행위 과정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노동력 확보와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김승욱 1998: 13). 이러한 경쟁적 관계는 복합도 진전에 따라 중앙 위계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다양한 권력의 원천들을 제도화한다(티모시(김경택 역) 2008: 36). 우산리 내우의 경우, 열상의 전통적 지식묘 축조 질서 준수와 그에 따른 영속적 지위의 인정이 권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즉, 열상의 지식묘 축조 메커니즘을 따르는 유력자와 집단은 다른 출계집단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고, 전통적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쟁 체제 내에서 권력을 추구하려는 야심찬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기존 세력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결과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었던 전통 질서의 파괴, 즉

영속성을 지니고 있던 기존 지식묘 축조 질서의 대전환이었다고 생각된다. 섬진강, 탐진강과 같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던 대하천은 우주의 자연적 질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하천의 흐름에 맞추어 열상으로 지식묘를 축조하는 행위는 초자연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었으며, 유력자와 그 집단들에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데올로기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상의 지식묘군 자체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이며,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 질서의 파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유력 개인 또는 집단의 생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고, 통치 이념과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질서 군집에서 확인된 유구, 유물의 현상을 볼 때, 이와 같은 사회 질서의 대전환을 꾀하였던 전략적 행동의 원천은 외래품의 차별적 소유와 송국리문화와 같은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었을 것이다. 특히, 송국리문화는 도작농경이라는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생업경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잉여 확보는 유력 집단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세력을 추종하고, 사회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실천 이론에 근거한 고고학적 모델에서 한 마을 내에서 특정 출계집단이 다른 집단의 통제를 시도할 때, 그들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통합하는 한편, 다른 집단과 차별화를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진다(김승욱 1998: 5). 즉,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이나 권위를 추구하고 동시에, 사회의 전통적 신념과 가치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권력을 확대시키려고 한다. 지식묘 사회에서 사회적·이념적 질서가 작동하는 장소는 공동의 매장의례공간, 즉 지식묘 축조 장소가 된다. 이를 벗어난 매장 행위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념적 질서 체제를 생성하는 것이고, 지식묘를 매개로 영속적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력 개인과 집단은 정치적 주도권 확보와 세력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였지만, 기존의 사회구조 내지 사회 체제를 상징하는 열상의 지식묘가 축조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부상한 수장층은 기존 지식묘 축조 질서를 흔들어 새로운 권력 구조의 생성과 재편을 가시화하는 한편, 조상 숭배와 전통적 권위의 상징 장소인 지식묘 군집 내에 새로운 영속적 지위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통합과 질서 유지를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산리 내우를 비롯한 I 유형의 지식묘 군집에는 위석식지식묘가 축조되어 있다. 이들은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열상 또는 비열상 구조 내에 개별적으로 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위석식지식묘는 지식의 연접 정도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남 지방에서 가장 늦은 단계에 축조된 형식에 해당한다(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그리고 위석식 형식은 묘역부+지식+지하매장주체부의 구조(우산리 곡천 3-1, 우산리 3·6호)에서 묘역부+지식(시천리 살치 1·2·10호) 또는 구획석+지식(오봉리 라 14호)의 구조를 거쳐 무묘역의 위석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묘곽형들과 같이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황재훈 2012). 하지만, 위석식은 거의 대부분 매장주체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 축조된 지식들 사이에 배치된 점으로 보아, 기존의 열상 또는 비열상의 지식묘 축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장 풍습으로 보인다.

우산리 내우의 위석식지식묘 분포 패턴을 보면, 이는 사실상 비열상 군집으로 대표되는 사회 질서의 재편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징 체제를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대부분 매장주체부가 없는 위석식의 특징에 근거하여 지식묘의 성격을 무덤으로서의 기능 상실, 한 집

단의 묘역 상징물 내지는 기념물로 본 이영문(2002b)의 주장이 주목된다. 즉, 지식묘 축조라는 장송 의례는 더 이상 산 자들의 사회를 조직하는 기제로 활용되지 않았고,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묘 축조 공간은 여전히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화된 장소였으며, 과거에 지식묘 축조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의 체험은 집단적 기억으로 작용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매개체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위석식의 축조는 비록 장송의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상들이 매장된 신성한 장소에 ‘공간 순서’와 상관없이 지식묘를 축조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위석식지식묘는 또 다른 유력자에 의해 사회조직의 새로운 구조화가 진행된 결과이며, 새로운 정치 권력의 재현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I 유형의 군집 패턴에 대해 전통적 사회 질서의 유지와 새로운 유력 집단의 등장, 기념물 축조를 통한 사회구조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열상의 지식묘 축조는 공간 순서에 따라 장송 의례를 행함으로써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비열상의 군집은 권력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전통적 가치 체계 내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시화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위석식지식묘의 공간 순서를 무시한 배치 구조는 장송의례가 아닌 기념물 축조 행위로서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II 유형은 열상의 지식묘 배치와 위석식이 혼재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림 11). 섬진강, 탐진강 유역에서 모두 13개 군집이 이 유형에 속한다. 앞서 열상의 구조는 공간 순서를 따라 연속적으로 지식묘를 축조하여 전통적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II 유형은 I 유형과 달리, 비열상의 군집이 보이지 않고, 위석식지식묘의 배치만 확인된다. 이는 섬진강·탐진강의 모든 지식묘 축조가 I 유형과 같은 사회 변화를 거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우산리 내우, 송정리 갈두와 신평리 마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바꾸어 새로운 정치 권력의 등장을 가시화하려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유형의 군집을 조영하였던 공동체는 역사적 연속성과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과 같이 석곽형 묘곽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순천 오봉리 라군, 장흥 오복리 오복동, 송정리 가군에서 볼 수 있듯이 석곽형, 혼축형, 판석형 묘곽이 함께 열을 지어 축조된 것으로 보아, 사회 내부적으로 우산리 내우와 유사한 정치권력 유지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석식의 배치 구조를 보면, I 유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거나 기 축조된 지식묘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위 공동체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지식묘 군집 내에 위석식지식묘라는 기념물 축조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려는 유력자의 정치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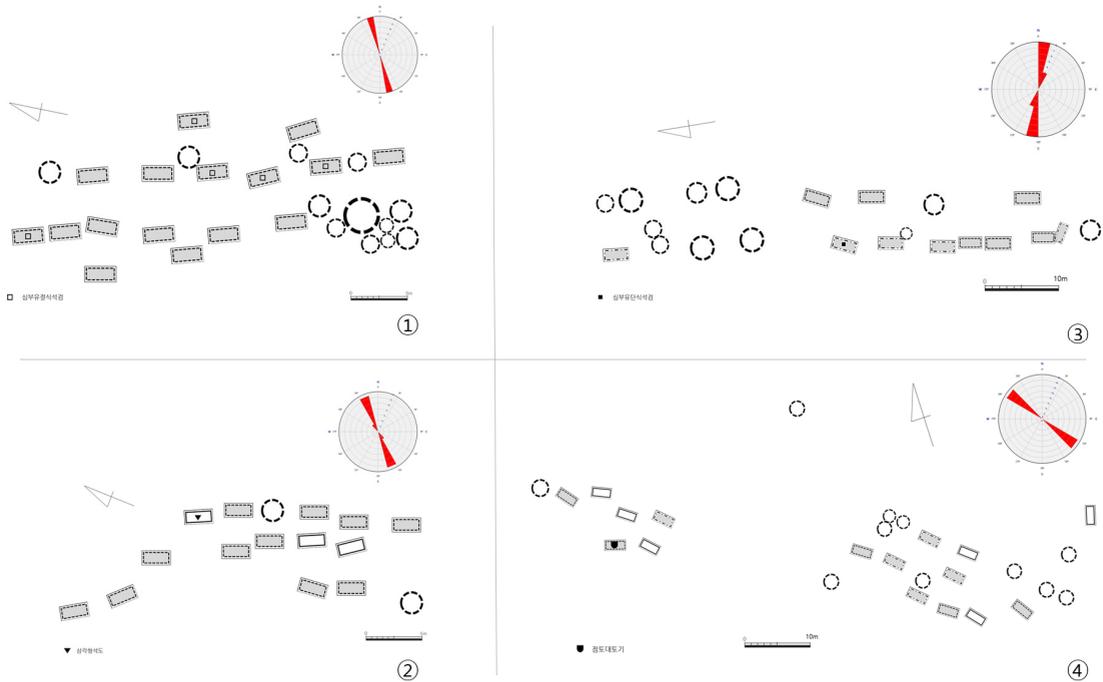


그림 11. II유형 지식묘군(①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②순천 오봉리 라군, ③장흥 오복리 오복동, ④장흥 송정리 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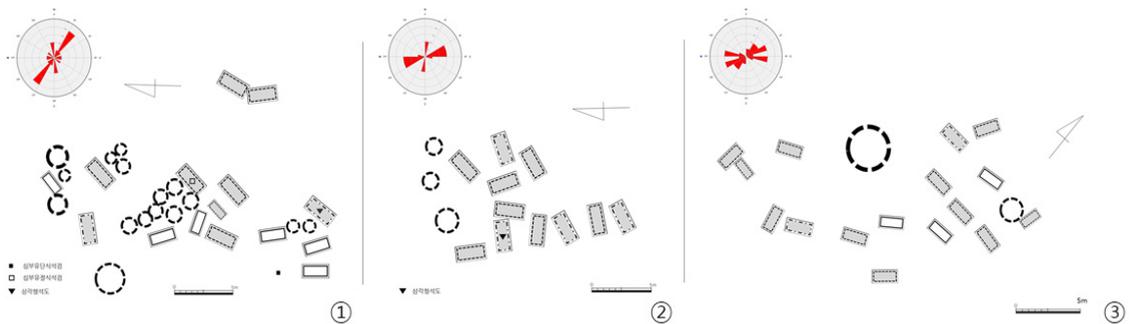


그림 12. III유형 지식묘군(①순천 우산리, ②순천 대곡리 도룡, ③장흥 하방촌 라군)

III유형은 지식묘가 무질서하게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I·II유형과 동일하게 위석식이 배치된 유형이다. 순천 우산리, 대곡리 도룡, 보성 봉갑리 고수월, 화순 사수리 대전, 장흥 대리 하방촌 라군 등 모두 9개소에서 확인된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형에 속하는 지식묘군에는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묘곽이 장축방향을 달리하며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위석식지석묘는 앞서 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내에 축조되어 있다. 이 유형은 우산리 내우와 같이 송국리문화를 적극 수용한 신흥 유력집단이 등장한 이후에 하천의 흐름을 따라 열을 지어 지식묘를 축조하는 전통적

매장 풍습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I·II유형의 세력과 같이 과거의 집단적 체험과 기억 전달을 매개로 사회가 유지되는 체제가 아닌, 조상과의 역사적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시간적으로는 I 유형에서 비열상의 군집이 조영되었던 시점이거나 그 이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II유형의 군집과 공시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석식의 분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맥락에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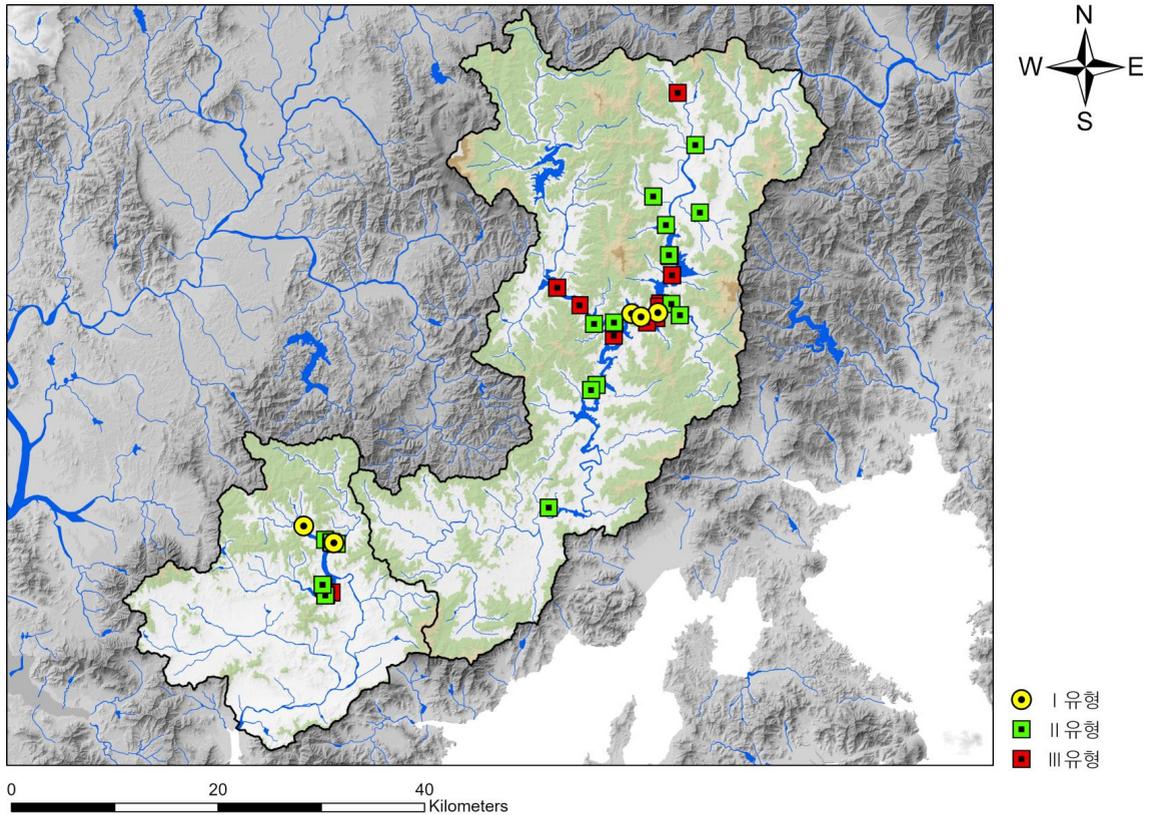


그림 13. 섬진강·탐진강유역 지석묘 군집 유형 분포

이상으로, 묘곽이 확인된 발굴지석묘를 중심으로 섬진강·탐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지석묘 군집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군집 패턴은 시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정치권력의 규모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 즉, I 유형의 군집을 조영한 집단은 두 유역권에서 지석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될 시점부터 존재하였던 사회공동체로서 정치권력의 추구와 확대라는 경쟁적 관계에서 송국리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성장한 진취적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II유형 조영 집단은 전통적 사회 체제와 질서, 연속성을 중시하였던 단위공동체로 상정할 수 있다. III유형은 I 유형의 사회적 질서 전환 과정을 경험한 새로운 세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으로, 열상의 배치를 이루는 I·II유형보다는 시기적으로 이후에 조영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모든 유형의 군집

에서는 위석식지석묘가 축조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대부분의 지석묘군에서 위석식이 축조되었고, 지석묘 축조의 마지막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I 유형과 II 유형이 먼저 조영되고, III 유형의 비열상 군집이 생성되고, 마지막으로 위석식이 배치되는 시간적 순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3>은 이러한 군집 유형의 분포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I 유형에 속하는 군집은 모두 5개 군으로 섬진강은 우산리 내우 일대에 집중해 있으며, 탐진강에서는 송정리 갈두, 신평리 마정 지석묘군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지석묘군은 두 유역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군집으로 앞서 설명한 I 유형 조영 집단의 역동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II 유형은 전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III 유형은 I 유형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III 유형 축조 집단이 I 유형의 비열상 지석묘 축조를 경험한 추종 세력으로 상정한 것과 부합된다. I 유형의 조영 집단은 섬진강·탐진강 유역권에서 전통적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내부에서의 경쟁과 차별화, 통합의 과정을 거쳐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공동체로 인식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역동적 사회 변화를 초래하였던 배경에 대해 공간적 상호작용과 사회 네트워크 중심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IV. 지석묘 사회의 성장 배경

-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

앞서 본 바와 같이, I 유형의 군집 조영 집단은 섬진강·탐진강 유역권에서 국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각 유역권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두 유역권 지석묘의 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볼 때, 지석묘 축조 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諸공간적 차원에서 특정 집단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부 집단과 연계된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물류, 교통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단위공동체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다양한 정치권력 확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상호작용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석묘 사회의 성장 배경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국지적 차원의 지석묘 분포 패턴에 대해 검토해 보자. 앞서 본 I 유형과 같은 군집을 형성한 집단은 최초에는 일차적으로 자원을 개척하고 인접한 집단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였던 국지적 단위에서 정치경제적 우위를 점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국지적 단위는 <그림 14>의 지석묘 밀도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표준유역권과 일치한다. 이를 감안하여 국지적 분석 단위는 표준유역권으로 설정하고, I 유형의 지석묘군이 위치한 주암댐유역권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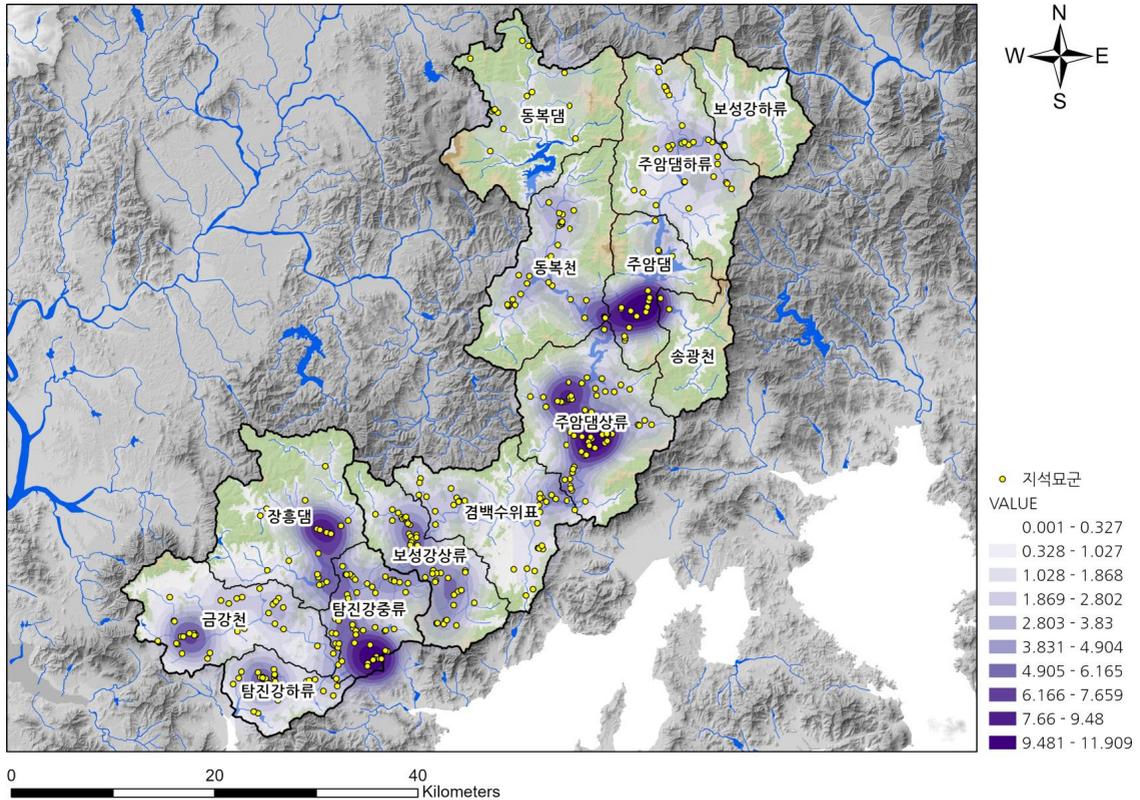


그림 14.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밀도분석 결과

주암댐 유역에서 지석묘 축조 집단의 공간적 상호작용은 유역 내에서의 가시권과 사회 네트워크 중심성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주암댐 유역에는 우산리 내우가 가장 큰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 유역 내에 중·소 군집들이 다수 분포한다(그림 15). 이들 지석묘 간의 가시권은 <그림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주암댐 유역에 분포하는 지석묘 군집 간의 가시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상생활권으로 간주되는 반경 1km를 기준으로 누적가시권을 분석한 것인데, 우산리 내우를 중심으로 한 반경 권역은 4개의 가시권이 중첩된 지점에 해당한다. 이는 우산리 내우는 인접한 지석묘 축조 집단과 일상적인 생활권에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세력의 성장 과정에서 회유, 설득, 강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권력 확대 전략을 구사하여 추종 집단의 규모를 쉽게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가시성 확보에 유리한 환경은 우산리 내우와 같은 대규모 지석묘 군집을 형성하였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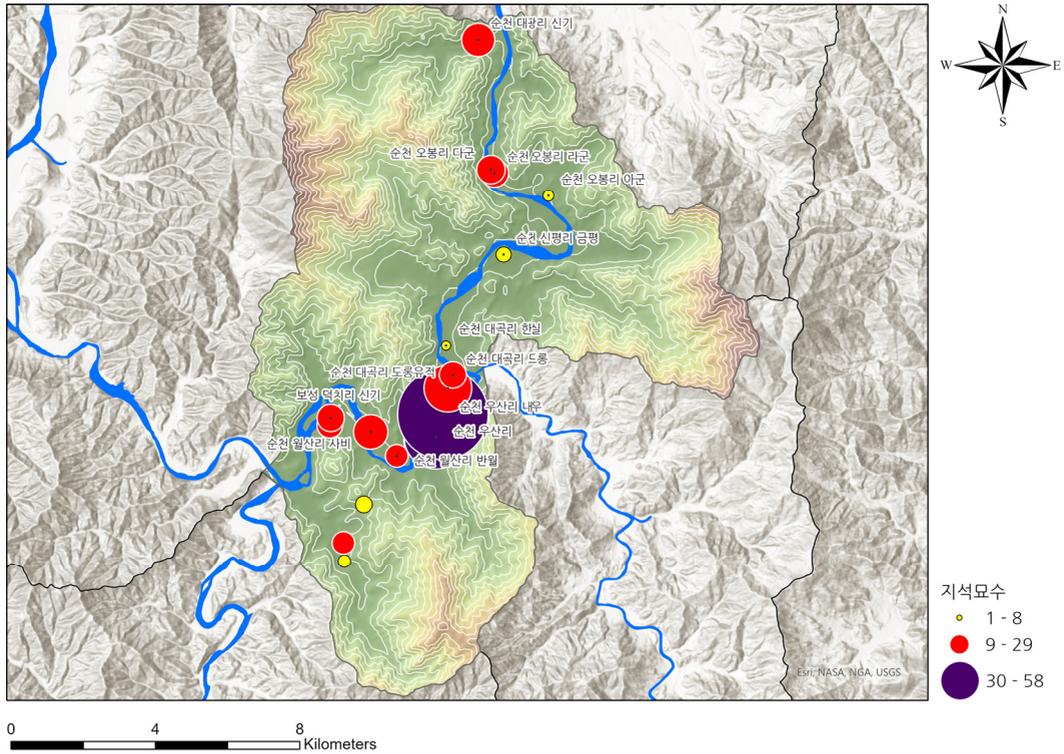


그림 15. 주암댐 유역 내 지석묘군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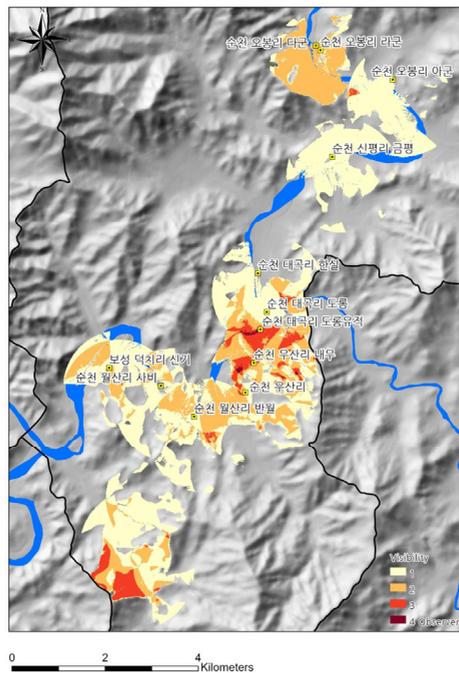


그림 16. 주암댐유역 지석묘군 간 가시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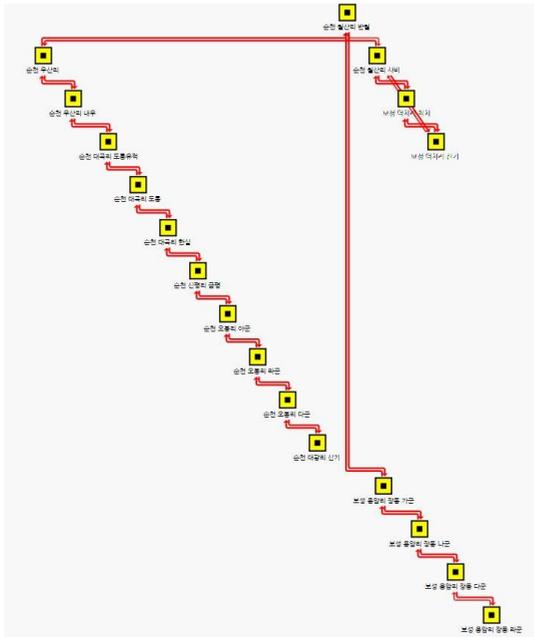


그림 17. 주암댐유역 지식묘 SNA분석결과

표 4. 주암댐 지식묘군 근접중심성

군집명	근접중심성
순천 우산리	10.000
순천 우산리 내우	10.000
순천 월산리 반월	9.710
순천 대곡리 도룡유적	9.710
순천 대곡리 도룡	9.178
보성 용암리 장동 가군	8.481
순천 대곡리 한실	8.481
보성 덕치리 신기	8.171
순천 월산리 사비	8.171
순천 신평리 급평	7.701
보성 용암리 장동 나군	7.363
보성 덕치리 척치	6.907
순천 오봉리 아군	6.907
보성 용암리 장동 다군	6.381
순천 오봉리 라군	6.147
보성 용암리 장동 라군	5.537
순천 오봉리 다군	5.447
순천 대광리 신기	4.820

한편, 우산리 내우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권 내의 통제력뿐만 아니라, 국지적 차원에서 정보,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림 17>은 주암댐 내에 분포하는 지식묘군집을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며, <표 4>는 이를 근거로 근접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군집은 우산리와 우산리 내우이다.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공간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접근이 유리한 ‘글로벌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강동석 2019). 다시 말하면, 우산리 내우를 중심한 지역은 최상위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 구성단위 간의 교류, 물적 자원이나 정보의 교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 조건 하에 우산리 내우는 국지적 차원에서 사회 변동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보성강 유역의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지적 공간 단위에서 사회적 자원의 확보와 통제력을 지녔던 우산리 내우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차원의 중심 세력으로도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의 정치적 경쟁에서 공간적 위치는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 지역 내에서 중심지역에 위치하는 공동체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 등 물리적 자원의 접근에 유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경쟁의 성패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김승욱 1998: 22). 이와 같은 공간적 위치의 우위 관계는 앞서 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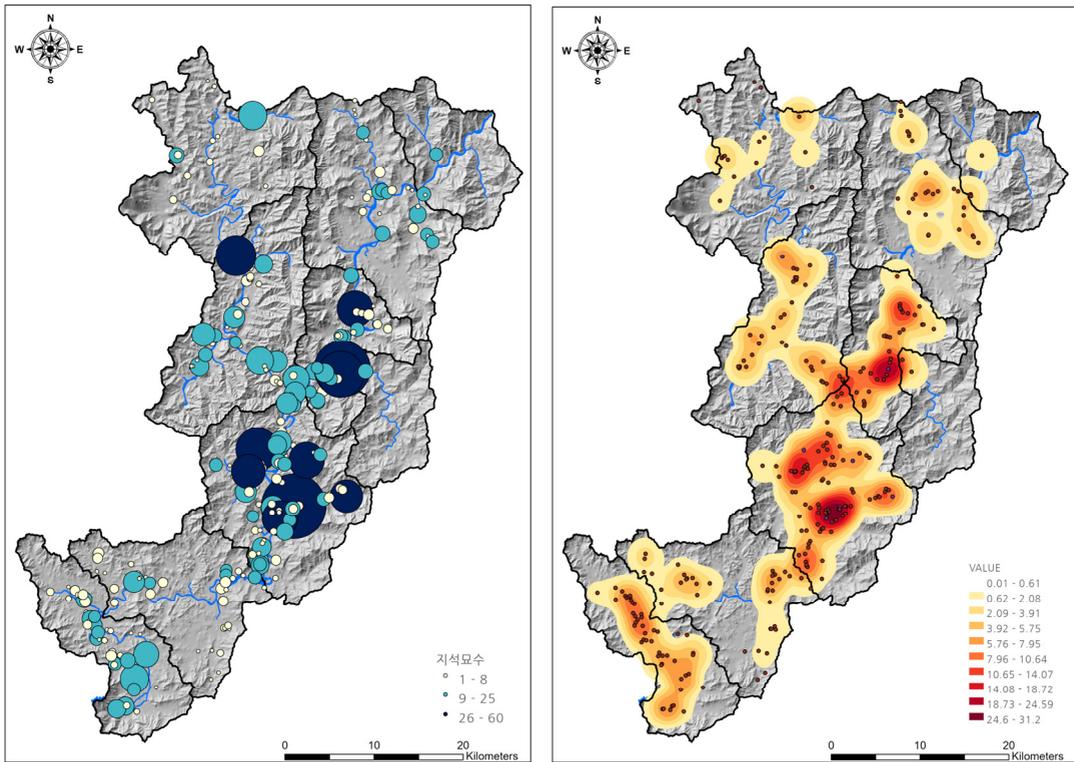


그림 18. 섬진강 유역 지석묘 군집 규모와 지석묘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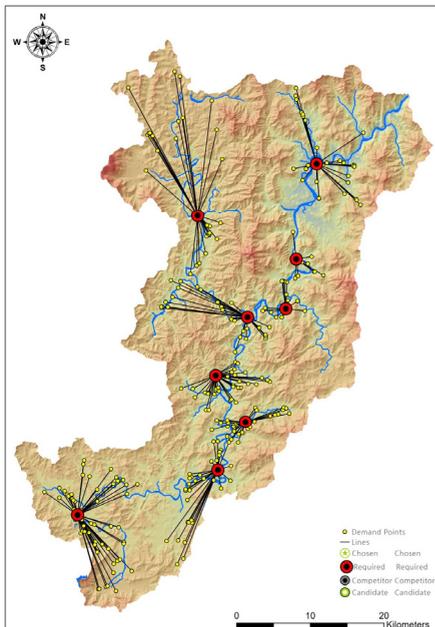


그림 19. 섬진강유역 지석묘군 간의 입지-배분모델 분석 결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지석묘 축조 세력 간의 경쟁적 관계를 상징해 보기 위해 <그림 18>과 같이 군집의 규모와 지석묘 밀도를 근거로 대표적인 지석묘군을 설정하였다. 대표 군집은 모두 9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표 군집이 국지적 차원에서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전제 하에 주변 지석묘군과의 상호 작용을 입지-배분 모델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그림 19). 입지-배분 모델에 적용한 함수는 최대커버함수(Maximize Coverage)로 각각의 대표 군집을 중심으로 모든 지석묘가 연계되도록 설정하였다. 지석묘 군집의 크기와 밀집도는 인적 자원의 집중과 상호작용 강도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나 물적 자원의 유통에 차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각 대표 군집의 축조 집단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국지적 차원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심지들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상호 경쟁 또는 연대하며 물적 자원이나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정치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섬진강 유역 지식묘 사회의 네트워크로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유통되었던 것은 비과형동점으로 대표되는 외래품이었으며, 송국리문화의 장송의례, 농경과 관련한 선진 기술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섬진강 유역 지식묘 사회의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고, 지역적 차원의 조직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은 <그림 20>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이곳은 동북천, 보성강 분류가 합류하는 지점 일대와 보성강-고흥반도를 연계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각각 우산리 내우와 덕치리 신기, 문양리 양지가 위치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섬진강 유역에 우산리 내우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이외에 보성강 상류에 위치하며 전남 남해안 지역과 교류하고 있었던 문양리 세력 등, 2개의 중심 집단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들 중심 세력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외래품 입수나 정보 접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주체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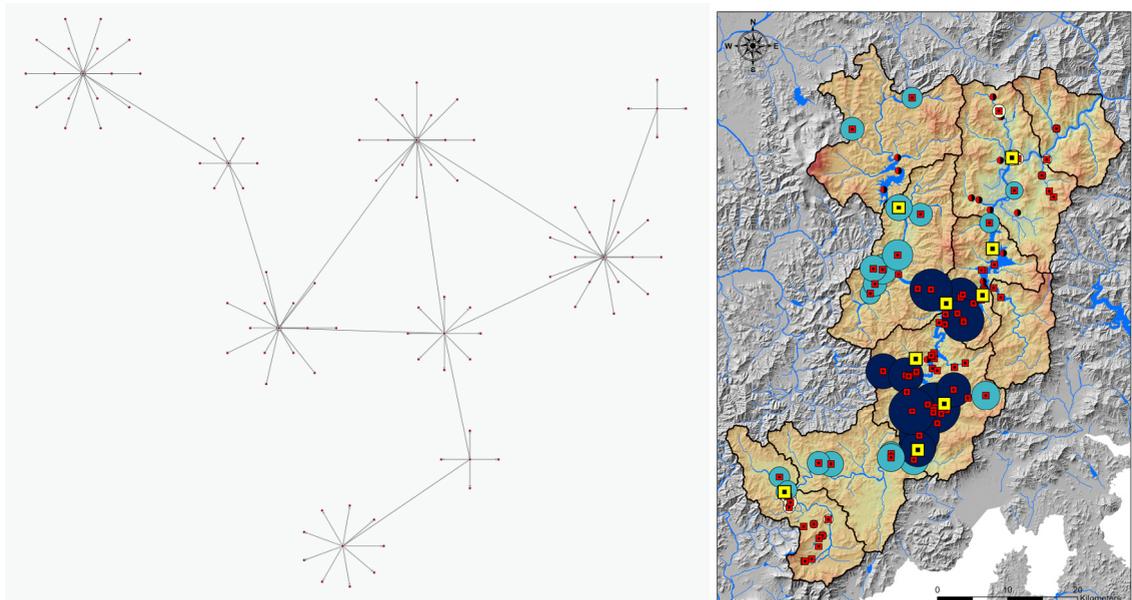


그림 20. 섬진강유역 사회 네트워크망와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2) 네트워크망은 소군집의 경우, 근접한 중간집과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여 네트워크 조직망 구성 시 제외하였다. 즉, 지식묘 군집 규모와 밀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중심지식묘군과 중간집 지식묘 간의 상호작용망을 구성하였다.

V. 맺음말

이상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간취되는 문화적 동질성과 사회 내부의 역동성, 그리고 국지적·지역적 경쟁 관계 속에서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였던 단위공동체의 성장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식묘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지식묘와 유물의 형식 분류, 지식묘의 입지와 분포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기초로 계기적 발전 단계를 설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묘 축조라는 매장의례를 공유하고 있었던 섬진강, 탐진강 유역 사람들의 전통적 가치 공유 양상과 역동적 사회 변화상을 검토해 보았다.

지식묘 형식에 대한 재검토에서는 묘곽의 축조와 외형의 완성에 주목하여 매장의례 문화의 공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유역은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위석형의 축조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시신 안치 공간의 축조 기술과 매장 풍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 유역권은 기반석의 비율도 대체로 일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석을 설치하여 외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망자에 대한 기억과 영속적 지위를 상기시키려는 매장의례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섬진강·탐진강 유역의 지식묘군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군집 패턴은 시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정치권력의 규모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식묘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 특히, I 유형에서는 열상의 지식묘 배치로 대변되는 전통적 사회 질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을 차별화하는 한편, 공동체의 매장의례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을 시도한 사회구조의 재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밖에 II 유형과 III 유형에 나타난 공간 순서는 유력 개인 또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 추구 의지와 기념물 축조를 통한 또 다른 방식의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체성 강화 전략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섬진강유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I 유형과 같이 섬진강·탐진강 유역에서 역동적 성격의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집단이 국지적·지역적 차원에서 위신재와 선진 기술, 정보를 통제하는 중심 세력으로서 공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諸공간적 차원에서 특정 집단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부 집단과 연계된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물류, 교통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단위공동체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 구사를 통해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식묘 군집 패턴과 군집의 규모 등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동석, 2012, 「GIS를 이용한 남한지역 지식묘의 분포현황 분석」, 『동북아시아 지식묘』 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강동석, 2019, 「지식묘사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검토 - GIS와 SNA를 이용한 영산강중류역과 여수반도의 비교-」,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 김경택, 2004, 「보성강 유역 지식묘사회의 연구 - 지식묘 피장자의 위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주류성.
- 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 - 섬진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62, 호남고고학회.
- 김승옥, 1998, 「복합사회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일례」, 『호남고고학보』 8, 호남고고학회.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무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 송국리 유적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적 접근-」, 『국사관논총』 104, 국사편찬위원회.
- 김진영, 2010, 「청동기시대 탐진강유역의 문화교류 양상과 교통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 박덕재, 2012, 「보성강유역 지식묘문화에 대한 연구 - 주암댐 수몰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준호, 2009, 「호서지역 마제석검의 변화상」, 『호서고고학』 20, 호서고고학회.
- 얼, 티모시(김경택 역), 2008, 『죽장사회의 정치 권력』, 도서출판 考古.
- 이영문, 1987, 「전남지방 지식묘의 성격 - 분포 및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0, 한국고고학회.
- 이영문, 1997, 「전남지방 출토 마제석검에 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4, 한국상고사학회.
- 이영문, 1991, 「한반도 출토 비파형동검 형식분류 시론」, 『박물관기요』 7, 단국대학교.
- 이영문, 1993a, 「전남지방 지식묘사회의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문, 1993b, 「전남지방 지식묘사회의 영역권과 구조에 관한 검토」, 『선사와 고대』 5, 한국고대학회.
- 이영문, 2002a,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 주류성.
- 이영문, 2002b,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 이재운, 2011,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검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철,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호남고고학보』 42,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15, 「섬진강 분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 『선사와 고대』 46, 한국고대학회.
- 피어슨, 마이크 파커(이희준 역), 2009,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
-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분류 시론 - 1990년대 이후의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43, 한국상고사학회.
- 조진선, 2008, 「탐진강유역권 지식묘의 형식과 변천」, 『호남고고학보』 30, 호남고고학회.
- 지건길, 1990, 「호남지방 고인들의 형식과 구조」, 『한국고고학보』 25, 한국고고학회.

- 최성훈, 2015, 「전남 동남부지역 지식묘사회 변천과정」, 『한국청동기학보』 17, 한국청동기학회.
- 황재훈, 2006, 「전남지방 지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 - 개별 지식묘군의 축조순서 분석을 통해서 -」, 『한국상고사학보』 53, 한국상고사학회.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 20, 호서고고학회.
- 황재훈, 2012, 「섬진강유역 지식묘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5, 한국상고사학회.